

일제시기 臺灣 知識人의 朝鮮 認識*

-臺灣文化協會 인물을 중심으로

이승찬** · 손준식***

목차

- I. 서론
- II. 臺灣意識의 형성과 대만문화협회
 - 1. 대만의식의 형성 배경
 - 2. 대만문화협회의 활동과 성격
- III. 『臺灣民報』 등에 나타난 조선 인식
 - 3-1. 동병상련의 처지
 - 3-2. 비교와 참고의 대상
 - 3-3. 경쟁과 猜忌의 상대
- IV. 결론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3851).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한국과 대만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이해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런 현상이 국제정치와 경제관계 등 현실적 이유 외에 역사적 편견을 포함한 잘못된 타자 인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일제시기 식민지 조선의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대만에 대한 무관심과 우월감의 뿌리를 살펴본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있다.¹⁾ 한편 대만인의 한국 인식 특히 그것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²⁾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대만문화협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제시기 대만 지식인의 조선 인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921년 창립된 대만문화협회는 당시 대만 지식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

-
- 1) 손준식, 「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 『조선일보』(1920-1940)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34, 2007; 손준식, 「『동아일보』(1920-1940) 기사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 『中國學報』61, 2010; 손준식, 「식민지조선의 대만 인식: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창비, 2012. 손준식·이승찬, 「『每日申報』(1910-1945) 기사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 『역사문화연구』63, 2017.
 - 2) 일제시기 대만인의 조선 인식에 대해서는 주로 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崔末順, 「日據時期臺灣左翼刊物的朝鮮報導 - 以『臺灣大衆時報』和『新臺灣大衆時報』爲觀察對象」, 『中國言語文化』2, 2012; 崔末順, 「日據時期的臺灣文壇與韓國」, 『跨國·跨語·跨視界-臺灣文學史料集刊』5, 2015; 황선미, 「세춘무(謝春木)의 기행문에서 나타난 조선인식」; 廖振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한 안중근에 대한 대만의 관점」, 임대근·천귀웨이(陳國偉), 『대만 문학: 식민의 기행부터 문화의 지평까지』, HUINE, 2017; 최말순, 「식민지 자치론과 대만 지식인 葉榮鐘의 조선행」, 김재용 외 편저, 『한국근현대문학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역락, 2018; 崔末順, 「1940年代臺灣文壇提及朝鮮的脈絡及其理由」, 『東亞殖民主義與文學研究會』第五次研究大會暨『臺灣/滿洲/朝鮮的殖民主義與文化交涉』國際學術研討會 발표문, 2018.

만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각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러 지면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타자 인식이 “나(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신을 ‘대만인’이라 명명하여 타자와 구분하는 대만인 공동체 의식 즉 대만의식을 가진 대만문화협회 인사들이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은 식민지 피지배자 간의 상호 인식과 식민 지배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만의식의 형성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대만문화협회의 활동과 성격을 서술함으로써 대만 지식인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타자를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 그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 『대만민보』 등³⁾과 주요 인사들의 일기에 나타난 조선 인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함과 동시에 조선 언론의 대만 인식과 비교하고, 대만 지식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일본인의 글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인식의 실체를 파악해보았다.

II. 대만의식의 형성과 대만문화협회

1. 대만의식의 형성 배경

대만의식이란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공간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 내지 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 “대만이란 무엇인가?” 등의 정체성 문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⁴⁾ 대만 의식의 함의는 시대와 계층,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고 그 형성시기에 대

3) 본고에서는 대만에서 영인본으로 출간된 『대만청년』·『대만』·『대만민보』·『대만신민보』(1920.7-1932.4)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 黃俊傑, 『臺灣意識與臺灣文化』, 臺北, 臺灣大學出版中心, 2006, 3쪽.

해서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淸朝 지배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본다.⁵⁾

청조 통치기간(1683-1895) 대만은 지리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거의 왕래가 없는 남북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주요 市鎮 중심의 서로 다른 인문사회가 형성되어있었다. 더욱이 한인 이민사회는 지연관계를 중시하여 출신지별, 사용언어별로 집단거주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는 지방의식이 매우 강렬하였다. 그 후 한인사회가 점차 도착화되면서 1860년대에 오면 '대만' 전역(원주민 제외)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식이 싹트지만, 하나의 완전한 대만의식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⁶⁾

청일전쟁의 패배로 대만이 할양되자 대만 주민들은 이민족의 지배에 격렬히 저항하였지만 그 대부분 청조를 국가정체성의 대상으로 삼거나 왕조 교체의 성격을 띤 진근대적 운동이었다.⁷⁾ 하지만 항토에 대한 애착과 자신을 버린 조국에 대한 원망 및 대만총독부의 양안 교류억제정책⁸⁾으로 대만인은 점차 중국과 멀어지게 되었다. 대만 점령 후 일본은 치안을 확보하고 자본주의화의 기초를 완성하여 일본자본의 진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만을 열대경제작물과 식량생산지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위주의 식민경제체제를 건립하였다.⁹⁾ 이를 위해 대만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확보한 관유지를 일본 자본가에게 불하하고 토

5) 王曉波, 『臺灣意識的歷史考察』, 臺北, 海峽學術出版社, 2001, 3-16쪽.

6) 손준식, 「일제 하 '대만의식'의 형성 배경과 그 성격」, 『중앙사론』 31, 157-162쪽.

7) 李筱峰, 「一百年來臺灣的政治運動中的國家認同」, 張炎憲 外編, 『臺灣近百年史論文集』, 臺北, 吳三連臺灣史料基金, 1996, 277-280쪽.

8) 예컨대 대만에 온 중국인 노동자 관리를 위해 1896년 반포한 「淸國勞働者取締規則」(1906년 「支那勞働者取締規則」으로 개정됨)과 대만인의 중국 방문을 규제하기 위해 1897년 반포한 「外國行旅券取締規則」(1900년 「外國旅行券規則」으로 개정됨) 등이 있다. 許雪姬 外, 『臺灣歷史辭典』, 臺北, 文建會, 2004, 184쪽; 梁華璜, 「日據時代臺民赴華之旅券制度」, 『臺灣總督府的對岸政策研究』, 臺北, 稻鄉出版社, 2001, 132-137쪽.

9) 黃秀政 外著, 『臺灣史』, 臺北, 五南圖書出版, 2002, 191-205쪽.

지소유권을 획정함으로써 일본자본의 대만 투자를 유도하고 보장하였다.¹⁰⁾ 다른 한편 외국자본을 대만에서 축출하고 대만 본토기업의 성장을 제한함으로써¹¹⁾ 일본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일본자본 편중¹²⁾ 특히 제당업에서의 독점¹³⁾과 사탕수수 수매가격 일방 결정 등과 같은 특혜를 부여하기도 하였다.¹⁴⁾

그 결과 대만의 농민과 노동자는 생계의 터전을 잃거나 무거운 조세 부담을 지며¹⁵⁾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지만¹⁶⁾, 세수

- 10) 戴國輝 著, 魏廷朝 譯, 『臺灣總體相』, 臺北, 遠流出版公司, 1992, 78쪽; 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0, 209-210쪽; 許介麟, 『日本殖民統治讚美論總批判』, 臺北, 文英堂, 2006, 29-30쪽.
- 11) 대만총독부는 1908년 「臺灣民事令」을 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1911년 총독부령 제16호를 공포, 대만자본이 會社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따라서 대만인이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본인을 참여시켜야만 했으니, 총독부의 의도는 대만인의 자본을 끌어내되 그 경영권은 일본인이 장악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 12) 1926년 대만 산업자본의 비중을 보면, 실 투자총액의 90.34%가 일본자본이고 대만자본은 9.66%에 불과했으며, 일본자본의 절반 이상이 제당업에 집중되어있다. 矢内原忠雄 著, 周憲文 譯, 『日本帝國主義下之臺灣』, 臺北, 帕米爾書店, 1987, 85-87쪽.
- 13) 일본자본의 제당업 진출로 1911년 21곳에 지나지 않았던 신식 제당공장이 1927년 45곳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전체 설탕 생산량의 98%를 점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본계 6대 공장의 생산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黃秀政 外著, 앞의 책, 200-201쪽.
- 14) 葉榮鐘, 『日據下臺灣政治社會運動史』, 臺北, 晨星出版, 2000, 571쪽; 矢内原忠雄 著, 周憲文 譯, 앞의 책, 240-241쪽; 김영신, 앞의 책, 220-221쪽.
- 15) 당시 일본 내지 주민의 1인당 각종 조세 총액이 연간 3円 34錢 3厘인데 반해, 대만 주민은 일본 내지에 비해 1엔 11전 1리를 더 부담해야 했으며, 이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주민보다 2엔 37전 4리가 더 많은 액수였다고 한다(許介麟, 앞의 책, 29-30쪽). 다만 대만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조선보다 훨씬 높았지만, “생산력 발전이 동반된 대만에서는 조세부담의 증가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던 반면, 조선에서는 생산력 발전이 조세부담에 비해 뒤처졌기 때문에 늘어난 조세부담을 감당할 여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고” 분석한 연구가 있다. 문명기, 「일제하 대만-조선 총독부 세입의 추이와 구조 -조세수입과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史林』 56, 2016, 214-217쪽.
- 16) 1921년 산업노동자의 민족별 비율은 대만인이 91.9%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공장 즉 노동조건이 열악한 직종일수록 대만인의 비율이 높았다. 노동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대만인은 12세 미만의 경우 99.2%, 12세에서 15세 미만의 경우

증대로 재정독립을 조기에 달성한¹⁷⁾ 대만총독부는 이들 재원을 주로 대만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각종 인프라 건설 역시 일본 독점 자본에 유리한 방면에 집중하였다.¹⁸⁾ 이러한 식민지 착취는 대만인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1920년대 이후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¹⁹⁾

한편 일본은 대만 통치를 위해 위임입법제도를 도입하여 대만총독의 전체체제를 성립시켰으니, 이는 문관총독 시대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²⁰⁾ 이를 위해 총독부는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경찰정치’의 이상을 실현²¹⁾하였고, 이들 대만 경찰은 행정 일선에서 권위와 폭력을 앞세워 대만인의 복종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며 민족적 차별을 가하였다.²²⁾ 대만인에 대한 차별은 관리임용과 승진²³⁾ 및 임금²⁴⁾ 등

97.4%, 15세에서 20세 미만의 경우 94.2%인 반면 20세 이상의 경우 92%를 차지해 전체 민족별 비율과 비슷해지고 있다. 山川均 著, 蕉農 譯, 『日本帝國主義鐵蹄下的臺灣』, 王曉波編, 『臺灣的殖民地傷痕』, 臺北, 帕米爾書店, 1985, 61-63쪽.

- 17) 토지조사사업 이전 36만 1천 마이던 경지면적이 조사 후 61만 9천 갑으로 증가하였고, 1898년 78만여 엔에 불과하던 토지세 징수액이 1905년에는 297만여 엔으로 급증하게 됨으로써 재정독립을 이루게 된다. 江丙坤, 『臺灣田賦改革事業之研究』, 臺北, 臺灣銀行經濟研究室, 1972, 142-145쪽.
- 18) 許介麟, 앞의 책, 29-30쪽.
- 19) 김영신, 앞의 책, 209-210쪽; 許介麟, 앞의 책, 32쪽.
- 20) 黃昭堂 著, 黃英哲 譯, 『臺灣總督府』, 臺北, 前衛出版社, 1994, 46-47, 154-155, 217-220쪽; 黃秀政 外著, 앞의 책, 181-185쪽.
- 21) 손준식, 「일제 식민지 하 대만 경찰체도의 변천과 그 역할」, 『중국근현대사연구』 47, 49-73쪽.
- 22) 「警察制度改革의 必要」, 『臺灣民報』, 제172호(1927.9.4); 「警察根性的故態復萌」, 『臺灣民報』, 제208호(1928.5.20); 「警察의 暴行」, 『臺灣新民報』, 제354호(1931.3.7); 「警察勿激民心惡化」, 『臺灣新民報』, 363호(1931.5.9); 「警察職權濫用」, 『臺灣新民報』, 제390호(1931.11.14).
- 23) 자세한 내용은 손준식, 「일제 하 ‘대만식’의 형성 배경과 그 성격」, 170-171쪽 참고.
- 24) 일본인 관리는 급여 외 급여의 60%에 달하는 외지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우체국 직원의 봉급도 일본인이 대만인에 비해 평균 약 2배가량 높았으며, 노동자의 노동도 일본인이 평균 2.28배 많았다. 소학교와 공학교 교사의 봉급도 평균 배 가까이 차이가

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와 교육내용, 교사자질, 교육경비 및 입시제도 등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학교 교육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불평등한 정치적 역할과 사회관계를 재확인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였다.²⁵⁾ 이러한 민족 차별정책은 대만인이 자신을 일본인과 다른 피지배자로 인식함으로써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대만총독부가 추진한 각종 근대화 조치와 동화정책은 식민지 착취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대만의 지리적 장애를 타파함으로써 대만인의 근대국민의식을 응집시키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도로와 철도 건설을 통한 교통망의 완성은 화물 유통뿐 아니라 인적 교류 등 사회이동성을 제고시켜 대만 각 族群(ethnic group) 간의 거리를 좁혔다.²⁶⁾ 또 도량형과 화폐 개혁은 화물과 자본의 유통을 촉진시켰으며²⁷⁾, 일어보급정책은 언어불통으로 격절되어있던 각 족군이 일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²⁸⁾ 그 결과 족군 간의 융합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구역별 '시진경제(Township economy)'가 全島的인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전환되게 하였고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은 대만의 '사회소통(Social communication)'을 더욱 활발하게 함으로써²⁹⁾ 대만의식의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났다고 한다(山川均, 앞의 글, 63-66, 75쪽). 같은 일본제국의 臣民임을 강조하고 一視同仁을 표방했던 일본 정부가 일본인에 한해 외지근무수당을 설정한 것도 문제지만, 동일 직종과 직급에서 일본인과 식민지인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는 분명한 민족차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 25) 자세한 내용은 손준식, 「일제 하 '대만의식'의 형성 배경과 그 성격」, 171-175쪽 참고.
 26) 王詩琅 外編, 『臺灣史』, 臺中, 臺灣省文獻委員會, 1977, 615-617쪽; 簡炯仁, 『臺灣開發與族群』, 臺北, 前衛出版社, 1995, 107-108, 140쪽.
 27) 黃秀政 外著, 앞의 책, 192-193쪽.
 28) 손준식, 「동화와 개화의 상흔 - 식민지 타이완의 일어」, 『식민주의와 언어』, 아름나무, 2007, 28-33쪽.
 29) 簡炯仁, 『臺灣開發與族群』, 141-143쪽; 黃秀政 外著, 앞의 책, 196-198쪽.

이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 착취와 민족차별에 대한 불만 및 사회이동성 제고와 공동어의 등장을 바탕으로 대만의식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이란 용어와 ‘대만인’이란 호칭이 하나의 공동체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분명한 형태를 드러내게 된다.³⁰⁾ 이러한 ‘대만인’ 상상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사조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대만인 동경유학생에 의해 시작되어 ‘啓發會’·‘新民會’를 잇달아 조직하고 『대만청년』 잡지를 발행하여 ‘민족자결’ ‘완전자치’ 등을 구호로 내세우며 식민지 대만의 정치개혁을 주장하였다.³¹⁾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대만 지식인들은 대만문화협회를 설립하고 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을 전개하였다.

2. 대만문화협회의 활동과 성격

1920년 1월 일본의 대만유학생 蔡式毅³²⁾·林呈祿³³⁾·吳三連³⁴⁾ 등이 회장에 林獻堂³⁵⁾, 부회장에 蔡惠如³⁶⁾을 추대하여 新民會를 결성하였다. 신

30) 陳翠蓮, 『臺灣人的抵抗與認同, 1920-1950』, 臺北, 遠流出版公司, 2008, 64-65쪽.

31) 葉榮鐘 等, 『臺灣民族運動史』, 臺北, 自立晚報社, 1983, 71-74쪽.

32) 채식곡(1884-1951): 新竹 출신의 변호사 겸 사회운동가로 1913년 明治大學 법과를 졸업하였다. 대만문화협회 이사, 대만민중당 고문, 대만지방자치연맹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고 1935년 臺北市會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33) 임정록(1886-1968): 桃園 출신으로 『臺灣青年』·『臺灣』·『臺灣民報』·『臺灣新民報』·『興南新聞』의 편집인 등으로 활동하였다. 대만문화협회 창립에 참여하고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의 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34) 오삼련(1899-1988): 臺南 출신으로 1919년 東京商科大學에 입학하였고 1920년 신민회 조직에 참가하였으며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臺灣新民報』 편집인 겸 논설위원 등을 맡았다.

35) 임헌당(1881-1956): 대만의 대표적 가문인 霧峰(臺中) 林家 출신으로 신민회·대만문화협회·대만민중당·대만지방자치연맹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제시기 대만의 민족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우파 인물로 자치운동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36) 채혜여(1881-1929): 臺中 출신으로 1908년 제당회사를 설립하였고 1918년 임헌당 등과 臺灣文社를 설립하여 『臺灣文藝叢誌』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신민회 부회장을 맡았고 『대만청년』 발간을 위해 출자하였다. 대만문화협회가 성립된 이후 이사직을 맡았다.

민회에는 彭華英³⁷⁾·蔡培火³⁸⁾·王敏川³⁹⁾ 등도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이후 대만문화협회에서 활약하게 된다. 신민회는 결성 당일 정관을 발표하고 『臺灣青年』의 발간을 구상하였다. 또한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활동 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대만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대만 통치의 개혁운동을 진행한다.” “2. 우리의 주장을 선전하고 島民을 계몽하며 동지를 얻기 위해 기관지를 발간한다.” “3. 중국인 동지와 의 연락을 도모한다.”⁴⁰⁾ 즉 그 목적이 정치개혁과 계몽운동을 통한 대만인의 권익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민회는 성립 후 겉으로 순수한 연구단체임을 표방하고 공식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東京臺灣青年會의 배후에서 각종 활동을 주도하였고 대외활동이 필요한 경우 동경대만청년회의 명의를 사용하였다.⁴¹⁾ 신민회는 ‘六三法’⁴²⁾ 철폐운동,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⁴³⁾, 채혜여·임헌당 등의 출자를 받아 잡지사(세우고 임정록·채

37) 팽화영(1893-1968): 南投 출신으로 1918년 明治大學에 입학하였고 臺灣青年會에서 활동하였다. 신민회 성립에 참여하였으며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1924년 대만에 돌아와 대만문화협회에 참여하였고 이후 대만민중당에서도 활동하였으나 蔣渭水와의 불화로 대만민중당을 탈퇴하였다.

38) 채배화(1889-1983): 雲林 출신으로 1910년 臺灣總督府國語學校를 졸업하고 1915년 임헌당의 지원으로 일본에 유학하던 중 1920년 『대만청년』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1923년 대만문화협회에 가입하였고 이후 대만민중당, 대만지방자치연맹에서 활동하였다.

39) 왕민천(1889-1942): 彰化 출신으로 1919년 早稻田大學에 입학하였고 이후 신민회에서 활동하였다. 1920년 『대만청년』 편집을 담당하였고, 『대만민보』 대북 지사장을 맡기도 하였다. 대만문화협회에 가입하였고 대만문화협회 분열 후 신문화협회를 주도하며 1928년 『臺灣大衆時報』를 발행하였다.

40) 林柏維, 『臺灣文化協會滄桑』, 臺北, 臺原出版社, 1998, 47쪽.

41) 周婉窈, 『日據時代的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 臺北, 自立報系文化出版部, 1989, 31쪽.

42) 일본제국의회는 대만의 치안이 불안하고 일본과 왕래가 불편하며 풍토와 민심이 일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1896년 「법률 제63호」를 반포하여 대만총독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 즉 ‘律令’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입법제도를 도입하였다. 黃昭堂著, 黃英哲譯, 앞의 책, 46-47, 217-220쪽.

배화 등이 중심이 되어 1920년 7월 월간잡지 『대만청년』을 창간하였다. 식민지 대만의 현실을 고발하고 대만인의 요구를 알리고자 했던 『대만청년』은 출간 즉시 대만 내로 유통되어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으며 당시 중등 이상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또 『대만청년』은 그 출자자와 편집자 및 필자들이 이후 대만문화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함에 따라 대만문화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으니, 이는 『臺灣』·『臺灣民報』 등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1920년 11월 蔣渭水⁴⁴⁾는 대만인 최초의 비행사 謝文達의 대만 방문 환영회 자리에서 總督府醫學專門學校와 師範學校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대만유학생들이 신민회를 통해 이미 사회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지식인과 학생들 역시 단체를 조직하여 이에 호응하고자 하였다. 이에 장위수는 임헌당을 만나 조직 결성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였는데,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장위수와 지주·士紳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임헌당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1921년 10월 창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마침내 대만문화협회가 결성되게 된다. 창립대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총독부의학전문학교·사범학교·상업학교·공업학교 학생들이 많았다. 창립 첫째 회원 수는 1,032명으로 의사·변호사·자산가·지주·학생·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모두 망라하였고 회원이 가장 많을 때는

43)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 방식을 두고 일본의 대만유학생들 사이에 동화주의 노선과 자치주의 노선의 대립이 있었지만, ‘육삼법’철폐를 주장하던 동화주의 노선은 1920년 조선의 친일파 정객 閔元植의 암살을 계기로 퇴조하였고 자치주의 노선도 대만의 현실을 고려하여 ‘완전자치’ 요구 대신 식민지 민선의회설치로 전환하게 된다. 葉榮鐘 등, 앞의 책, 107-108쪽.

44) 장위수(1890-1931): 宜蘭 출신의 의사 겸 민족운동가로 일제시기 대만의 사회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한명이다. 대만문화협회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무이사직을 맡았다. 1927년 임헌당과 대만민중당을 창립하였고 중앙상무위원 겸 재정부장을 담당하였다.

1,171명(1926년)에 달했다.⁴⁵⁾

대만문화협회는 겉으로 문화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그 실제 목적은 계몽적 문화운동을 통해 대만인의 사회 해방과 문화수준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었으니 사실상의 민족운동 단체였다. 대만문화협회는 대만 각지에서 강습회, 여름학교, 문화강연회, 문화극 공연 등을 개최하여 계몽운동을 실시하였고 소위 ‘대만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대만문화협회가 개최한 강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이나 일반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니, 1923년 연간 21,086명이던 청중 수가 1925년 117,880명으로 늘어났고⁴⁶⁾, 1923년 연간 36회였던 강연 횟수도 1926년 315회로 늘어나게 된다.⁴⁷⁾ 당시 臺南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吳新榮은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關帝廟에 가서 문화협회가 주관하는 문화강연을 들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동료들과 그 내용을 토론하곤 했다고 한다.⁴⁸⁾

대만문화협회는 문화단체로 허가받았기에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벌일 수는 없었다. 다만 대만문화협회를 설립했던 임헌당·장위수 등 많은 회원이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 개혁을 주장하는 등 대만인의 정치활동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문화협회는 각종 사회운동의 활동 모체가 되었다. 또한 총독부에 의해 대만인의 정치운동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대만 지식인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으며, 『대만민보』 등은 ‘대만인의 유일한 언론 기관’으로 대만문화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담당하였다.⁴⁹⁾

45) 林柏維, 앞의 책, 65-67, 71쪽.

46) 黃頌顯, 「臺灣文化協會的思想與運動(1921-1931)」, 中國文化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73쪽.

47) 李理, 『日據時期臺灣警察制度研究』, 臺北, 鳳凰出版社, 2013, 133쪽.

48) 吳新榮, 『雲瀛回憶錄』, 臺北, 前衛出版社, 1989, 96쪽.

49) 『대만청년』은 1922년 4월 『대만』으로 개명되어 林呈祿이 주간, 王敏川이 중문 편집을 담당하였다. 그해 12월 대만문화협회 간부들이 『대만』을 『대만민보』로 명칭 변경하는

민족자결주의를 바탕으로 대만인의 권리 존중을 요구한 대만문화협회는 일제의 동화정책에 반대하고 대만 특유의 문화 건설 등을 주장하였지만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장위수는 대만이 ‘日華親善’의 매개가 되기 위해 대만인의 교육 및 지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의 대만인 지위 향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정치체제의 독립이나 국가의 건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⁵⁰⁾ 1921년부터 1934년까지 15차례에 걸친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 역시 대만 내에 민선자치의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었지 대만 독립과는 무관한 것이었다.⁵¹⁾ 대만문화협회 인사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식민통치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식민지인 조선에서의 통치정책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만총독부의 입장에서 대만문화협회는 대만인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식민통치에 장애가 되는 단체였기에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이에 회유와 탄압을 통해 대만문화협회를 제어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모인 대만문화협회의 속성을 이용하여 내부 분열을 기도하기도 했다.⁵²⁾ 더 나아가 대표적 친일 인사인 총독부 평의원 辜顯榮⁵³⁾을 중심으로 대만문화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대만의회설

문제를 논의한 결과(張以琳, 『日據時期臺·韓士大夫의民族意識 - 以『臺灣民報』·『三千里』爲例, 佛光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22쪽), 1923년 4월 중문으로만 구성된 半月刊 『대만민보』가 발행되고 『대만』은 1923년 5월부터 일문으로만 발행되었다. 『대만』은 1924년 5월까지 발행되었으며 『대만민보』는 『대만』 정간 이후에도 한동안 중문으로만 발행되다가 1924년 8월부터 지면의 1/3을 일문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대만민보』는 관동대지진으로 약 한 달간 정간되었다가 1923년 10월부터 旬刊으로 발행되었고 1924년 『대만』이 『대만민보』에 통합되면서 신문 형태를 갖추었으며 1927년 8월 週刊으로 변경되었다. 林柏維, 앞의 책, 86, 244쪽.

50) 林柏維, 앞의 책, 87쪽.

51) 이에 관해서는 周婉筠, 앞의 책 참조.

52) 林柏維, 앞의 책, 196-200쪽.

치청원운동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리도록 하였다.⁵⁴⁾

한편 일제 식민통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대만인의 평등한 권리 추구만을 목표로 삼은 자치주의 노선은 대만문화협회 내부로부터의 비판과 공격을 받게 된다. 1926년 5월 대만문화협회 간부들 사이에 정치결사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같은 해 7월 『대만민보』 총회에서는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우파와 무산계급 해방을 주장하는 좌파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1926년 10월 대만문화협회 정관 수정을 놓고 좌·우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1927년 1월 거행된 임시총회에서 좌파가 대만문화협회를 장악하게 된다. 이에 임헌당·장위수·채배화·임정록 등 민족주의 우파계열 간부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마침내 대만문화협회는 분열되었다.⁵⁵⁾

좌파가 완전 장악한 대만문화협회(통상 新文化協會라 부름)는 계급투쟁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각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農工運動에 매진하였다. 또 『臺灣大衆時報』를 발행하여 자신들의 운동을 선전하기도 했다.⁵⁶⁾ 1929년 신문화협회는 대만농민조합(1926년 결성)과 공동 투쟁을 펴기로 하였으나 농민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진행되면서 신문화협회 간부들 역시 검속에 걸리게 된다. 게다가 얼마 후 대만공산당(1928년 성립) 당원이 잠입하여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자 무정부주의자 등이 탈퇴하

53) 고현영(1866-1937): 彰化 출신으로 대만 할양 후 일본군의 향도가 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진압하는데 협력하였다. 1923년 臺灣公益會를 결성하여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에 반대하였고 『台灣日日新報』에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1934년 일본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54) 손준식, 「『皇民化運動』 이전(1895-1936) 臺灣의 식민통치 협력자」, 『역사문화연구』 31, 2008, 156-157쪽.

55) 林柏維, 앞의 책, 223쪽.

56) 신문화협회의 기관지 『臺灣大衆時報』와 『新臺灣大衆時報』의 조선에 관한 보도와 인식에 대해서는 崔末順, 「日據時期臺灣左翼刊物的朝鮮報導 - 以『臺灣大衆時報』和『新臺灣大衆時報』爲觀察對象」을 참조.

면서 1931년 대만공산당 외곽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 같은 해 6월 대만공산당을 비롯한 대만 내 정치·사회단체 대한 전면적인 검거령이 내려지면서 신문화협회도 자연히 와해되었다.⁵⁷⁾

대만문화협회를 탈퇴한 우파계열 인사들은 “민본정치 성립, 합리적 경제조직 건설,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이라는 강령 하에 1927년 7월 臺灣民衆黨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만민중당 역시 장위수 등의 扶助農工 노선에 반발한 임헌당·채배화 등 지주자산계급 출신의 온건파들이 1930년 지방자치 추진을 단일 목표로 하는 臺灣地方自治聯盟을 조직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분열되고 만다. 그 후 노동자·농민계급운동을 목표로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고자 한 대만민중당은 신문화협회와 마찬가지로 1931년 일제의 검거령에 의해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와해되었다.⁵⁸⁾ 그리하여 대만지방자치연맹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1937년까지 유지되었다.

『대만민보』는 대만문화협회 분열 이후에도 계속 간행되었는데, 임헌당·장위수 등 우파 인사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대만민중당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실제로 장위수는 신문화협회를 비판하는 글을 『대만민보』에 신기도 하였다.⁵⁹⁾ 『대만민보』는 1930년 3월 『臺灣新民報』로 이름을 바꾸고 예전대로 주간으로 발행되었다. 임헌당이 董事長, 임정록 등이 董事, 楊肇嘉⁶⁰⁾ 등이 감사, 채배화 등이 상담역을 맡았다.⁶¹⁾ 곧이어 대만민중당이 해

57) 林柏維, 앞의 책, 245-246쪽.

58) 자세한 내용은 簡炯仁, 『臺灣民衆黨』, 臺北, 稻鄉出版社, 2001을 참조

59) 「文協的新宣言」, 『대만민보』 제181호(1927.11.6).

60) 양조가(1892-1976): 臺中 출신의 사회운동가 겸 정치가로 1920년 清水街長을 맡기도 하였다. 대만의회실지청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25년 청원 대표로 동경에 가기도 하였다. 1926년 早稻田大學에 입학하였다가 1930년 대만에 돌아와 대만지방자치연맹에서 활동하였다.

61) 張以琳, 앞의 논문, 22쪽.

산되면서 『대만신민보』는 자연스럽게 대만지방자치연맹이 계승하게 된다.⁶²⁾ 이처럼 대만문화협회는 비록 분열·변질·와해되고 말았지만, 그 설립 초기의 핵심인사들에 의해 『대만민보』 등은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열 전 대만문화협회와 대만민중당, 대만지방자치연맹은 소위 ‘待機派’에 속한다.⁶³⁾ 이들은 일본과 대만에서 주로 활동하였기에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만인을 단결시키기 위해 “대만은 우리 대만인의 대만이다”⁶⁴⁾라는 구호 하에 대만을 하나의 특수한 지역단위로 하는 대만의식을 강조했지만, 자신이 중국인임을 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식을 일제의 민족차별에 대항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⁶⁵⁾ 그렇다면 대만의식과 중국의식이 결합된 의식형태를 갖고 있었던 대만문화협회 인사들의 조선 인식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 62) 『대만신민보』는 1932년 4월 15일부터 1941년 2월까지 日刊으로 발행되었는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漢文欄이 폐지되었고 1941년 『興南新聞』으로 개명되었다가 1944년 대만총독부가 대만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통폐합하면서 『臺灣新聞』에 합병되었다.
- 63) 若林正丈은 일제시기 대만인의 항일운동을 국가정체성과 운동방식이란 좌표를 가지고 ‘祖國派’(통일, 혁명)와 ‘待機派’(통일, 개량), ‘대만혁명파’(분리, 혁명) 및 ‘一島改良主義’(분리, 개량)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臺灣抗日運動中的‘中國座標’與‘臺灣座標’』, 『當代』 17, 1987, 40-51쪽). 그 중 ‘대기파’는 조국이 아직 대만을 해방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총독전제정치 하에서 대만인의 권익과 지위를 쟁취하면서 조국으로 회귀의 기회를 기다리지는 그룹이다.
- 64) 蔡培火, 「我島と我等」, 『臺灣青年』 1卷4號, 和文之部(1920.10.15); 蔡培火, 「我島與我等」, 『臺灣青年』 1卷5號, 漢文之部(1920.12.15).
- 65) 당시 항일민족운동에 참여했던 葉榮鐘이 “우리의 조국관념과 민족의식은 일본인의 차별과 업신여김, 압박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葉榮鐘, 『小屋大車集』, 臺中, 中央書局, 1977, 23쪽)고 한 회고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III. 『대만민보』 등에 나타난 조선 인식

1. 동병상련의 처지

조선에 대한 대만 지식인의 인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식민지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조선 신문에 비해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을 보이는 기사는 찾기 힘들지만, 일제의 차별적 대우나 정책을 다룰 때 조선은 대만과 함께 이를 극복해야 할 동반자로 언급되곤 하였다. 예컨대 식민지의 자치 보장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회의의 개설을 허용하고, 조선에 중의원 의원선거제 실시를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대만인과 조선인의 정치적 요구를 시기상조라는 명분으로 억누르는 것은 결코 식민지 통치상의 좋은 방책이 아니다”⁶⁶⁾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별 철폐에 관한 기사 중에는 참정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니,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대한의회설립청원운동을 주도했던 대만 문화협회 인사들이 이들 매체를 선전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1920년부터 1932년까지 『대만청년』·『대만』·『대만민보』·『대만신민보』에 조선이 언급된 기사 565건의 절반 이상(288건)이 정치와 관련된 것들인데⁶⁷⁾, 人事와 외교를 제외한 243건 중 참정권이나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된 것이 35%(84건)에 달한다. 만약 조선이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사 중 참정권 및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것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 가운데에는 아시아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조선과 대만이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행복을 누려야 하며, 조선과 대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대만인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강조한 기사도 있다.⁶⁸⁾ 즉 조선을

66) 『進み行く時代の力』, 『대만』 3권3호(1922.6.12).

67) 『대만청년』·『대만』·『대만민보』·『대만신민보』의 조선 언급 기사 중 정치 관련 건수는 다음과 같다.

대만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인구 수, 발전 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조선과 대만은 제국의 2대 식민지이다. 현재 조선의 인구는 1,788만 명, 대만의 인구는 398만 명으로 합하면 대략 2,200만 여명이다. 내지 본토의 인구 5,596만 명과 비교하면 거의 1/2을 점하고 있다. 인구 수로 보면 식민지인의 참정권 문제는 內政 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⁶⁹⁾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대만과 조선의 상황을 일본에 의회가 설치되었던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대만과 조선의 발달이 일본보다 낫다고 해도 제국의회가 설치된 메이지 22년보다 낫겠는가?”⁷⁰⁾라고 하면서 의회설치의 당위성을

정치 관련 기사 분류 통계

연 도	법률/행정	인사/동정	군사/외교	민족운동	소 계(%)
1920	9	0	1	0	10(3.5)
1921	10	0	4	3	17(5.9)
1922	13	0	4	0	17(5.9)
1923	17	4	1	10	32(11.1)
1924	14	0	3	12	29(10.0)
1925	18	4	0	5	27(9.4)
1926	12	3	1	5	21(7.3)
1927	9	0	1	4	14(4.9)
1928	19	3	0	7	29(10.0)
1929	15	0	0	1	16(5.6)
1930	18	1	0	25	44(15.3)
1931	9	5	9	5	28(9.7)
1932	3	1	0	0	4(1.4)
소계(%)	166(57.6)	21(7.3)	24(8.3)	77(26.8)	288(100.0)

68) 「亞細亞民族團結的機會」, 『대만민보』 2권9호(1924.6.1); 「臺人重大的使命」, 『대만민보』 2권14호(1924.11.21).

69) 「植民地の參政權問題」, 『대만민보』 제77호(1925.11.1.). 한편 「唯有臺灣議會的一路」, 『대만민보』 제135호(1926.12.12.)에서는 일본 내지 인구를 약 5,700만 명, 조선 약 1,800만 명, 대만 약 400만 명으로 추계하여 조선과 대만 인구의 합이 일본 본토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70) 「拓殖省新設與植民地の統治」, 『대만민보』 제172호(1927.9.4).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 외 선거와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기사에서도 조선과 대만에 참정권을 부여하고 자치제를 시행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⁷¹⁾

대만 지식인이 식민지 조선을 동질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그들의 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만문화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대만민중당과 대만지방자치연맹 결성을 주도했던 임헌당은 인도와 조선 사람들을 만난 후, “인도·조선·대만 세 약소민족이 모이니 그 감정이 함께 고난을 겪은 형제와 다르지 않고 말하는 태도가 모두 숨김이 없었다”⁷²⁾고 적었다. 또 米穀統制案⁷³⁾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이 이를 시행하고자 하면 조선과 대만의 반대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⁷⁴⁾, “(미곡통제안은) 대만과 조선 모두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만약 반대하지 않으면 장래 경제에 반드시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⁷⁵⁾라고 하여 조선과 대만의 처지가 동일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대만문화협회에서 활동하고 대만민중당의 창립위원 중 한 명이었던 黃旺成⁷⁶⁾은 조선에 대한 동질의식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71) 「記述歡迎 田川先生之盛會」, 『대만민보』 3권3호(1926.1.21.); 「普選背後之二問題」, 『대만민보』 3권5호(1926.2.11.); 「關於朝鮮臺灣地方自治制施行之建議案理由書」, 『대만민보』 3권9호(1925.3.21.); 「自治制實施建議案可決」, 『대만민보』 3권10호(1925.4.1).

72) 『灌園先生日記』, 1934년 4월 11일.

73) 1930년대 초 식민지에서 수입된 廉價米로 인한 미가 하락으로 일본 농민의 저항이 발생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본정부는 과잉 공급된 미곡을 사들여 정부가 정한 가격 아래로 미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높은 미가로 식민지 미곡 수입량이 계속 증가해 미가보호정책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대만과 조선총독부에 미곡 생산과 對日移出을 억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정책은 1936년 통과된 ‘米穀自治管理法’로 구체화되어 과잉 미곡을 줄이기 위해 일본·조선·대만에 減産量을 강제로 배정했고, 식민지가 감산량의 대부분(약 80%)을 떠안았다. 키즈밍 지음, 문명기 옮김, 『식민지 시대 대만은 발전했는가: 쌀과 설탕의 상극, 1895-1945』, 일조각, 2009, 253-256쪽.

74) 『灌園先生日記』, 1932년 7월 18일.

75) 『灌園先生日記』, 1935년 1월 18일.

76) 황왕성(1888-1978): 新竹 출신의 사회운동가로 대만문화협회와 대만민중당에서 활동

신문·잡지 기사에 대한 감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대만민보』에 실린 戴天仇(즉 戴季陶)의 「就日本的東洋政策而言」이라는 글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⁷⁷⁾고 적었는데, 이 글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일제가 조선과 대만의 민족자유를 존중하고 인민의회 소집 및 자치정부 설립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⁸⁾ 또 잡지 『海外』에 실린 후세 다쓰지(布施辰治)⁷⁹⁾의 조선공산당 사건과 관련된 글을 읽고 “그 주 의와 주장이 종이 위에 생생하게 나타난다”⁸⁰⁾고 적었다. 후세 다쓰지의 글은 조선공산당 사건의 책임·인권·재판 문제 등에 대해서 총독정치를 비판한 내용이었다. 황왕성은 이 글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대만민보』에 게재하기도 하였다.⁸¹⁾

동질의식은 조선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조선인이 살해당한 관동대지진에 대해 『대만민보』의 필자들은 이 사건의 살인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 하였고⁸²⁾, 다수의 선량한 조선인을 살해한 행위는 이후 조선 통치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⁸³⁾ 황왕성은 도쿄와 요코하마의 참상 및 군사 계엄으로 조선인을 단속한 일 등이 소름 끼친다고 적었다.⁸⁴⁾

하였다. 『대만민보』의 기자로 필명은 菊仙이었다.

77) 『黃旺成先生日記』, 1925년 4월 23일.

78) 「就日本的東洋政策而言」, 『대만민보』 3권11호(1925.4.11).

79) 후세 다쓰지(1880-1953): 일본 宮城縣 출신으로 인권변호사 겸 사회운동가이다. 농민·노동자 및 조선·대만 등 식민지 민중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기도 하였다. 2004년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애족장)을 수여받았다.

80) 『黃旺成先生日記』, 1927년 12월 30일.

81) 「關於朝鮮共產黨事件抗議總督政治的非違: 與湯淺政務總監的會見記」, 『대만민보』 제 191호(1928.1.15) - 제193호(1928.1.29).

82) 「鮮人數百名被殺」, 『대만민보』 1권9호(1923.11.1)

83) 「鮮人受虧」, 『대만민보』 1권8호(1923.10.15).

84) 『黃旺成先生日記』, 1923년 9월 14일.

같은 식민지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조선의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는 대만의 처지를 조선과 동일시하는 기사들이 다수 보이니, “조선과 대만의 통치제도는 그 脈絡이 雙兒의 관계가 有”하기 때문에 ‘대만 통치제도의 결합’은 바로 “조선의 현상을 說함과 如”하다고 평한 논설⁸⁵⁾과 대만총독부의 사상단속에 대해 “과부의 서름을 과부가 안다는 셈으로 실로 同情의 淚를 금할 수 없다”는 기고문⁸⁶⁾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또 대만 여행을 다녀온 여교사가 “그들의 환경이 우리와 같은 만큼 사상방면으로 동일한 점을 많이 엿볼 수가 있다”고 한 인터뷰⁸⁷⁾, 대만사회의 특징이 조선의 현상과 유사하다고 분석한 기고문⁸⁸⁾ 등이 실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병상련의 처지를 강조하는 기사는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1920년대 후반 특히 조선에서 지방자치개혁안이 곧 실시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1929년 말 이후⁸⁹⁾ 그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1930년부터 조선에서 먼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다는 결정은 오랫동안 참정권과 지방자치 개혁을 요구해왔던 대만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⁹⁰⁾ 그로 인해 차별 개선이나 식민지 관리의 減俸 문제

85) 「臺灣統治의 革新要望: 今後 形勢如何」, 『동아일보』, 1923년 4월 11일.

86) 盧正一, 「대만 복주를 단어와서」, 『동아일보』, 1923년 12월 10일.

87) 『조선일보』, 1927년 1월 13일.

88) 「대만의 현상과 대만인의 운동」, 『조선일보』, 1933년 1월 5일.

89) 1929년 8월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은 9월 朝鮮地方選舉取締規則를 발표하고, 조선의 지방자치개혁안을 마련하여 12월 일본으로 향했다. 출국 전 사이토 총독은 道評議會와 府協議會의 의결기관화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남겼지만, 조선총독부가 자치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이태훈,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 자치·참정권 청원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40쪽). 이후 조선의 지방자치개혁은 1930년 4월 閣議를 통해 방침이 공식 발표되었고, 1930년 11월부터 勅令 등을 통해 공포되었다.

90) 이는 기사 수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의 정치 관련 기사 수(44건)는 전년(16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는데, 그 중 약 50%가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선이 종종 함께 언급되곤 하지만, 참정권이나 지방자치 관련 기사에서 조선이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언급되더라도 주로 경쟁과 猜忌의 상대로 등장하게 된다.

2. 비교와 참고의 대상

한편 대만 지식인들은 1929년 이전까지 조선을 비교와 참고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즉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제국 내 대만의 지위(역할)를 부각시키거나 같은 식민지로서 대만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조선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재정과 관련해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關東州·樺太가 현재까지도 매년 본국으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에 비해 오직 우리 대만만이 한참 전인 메이지 37년도 이래 모국으로부터 보충금을 받지 않고 재정 독립을 이루었”⁹¹⁾기에 “매년 모국에 공헌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선이 매년 모국에서 1, 2천만 원을 보조받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⁹²⁾라고 하였다.⁹³⁾ 즉 조선 등 다른 식민지와와의 비교를 통해 대만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대만의 지위를 강조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언론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는 조선의 신문 발행 현황을 소개하면서 신문이 없는 대만의 실상⁹⁴⁾을 지적하고 언론기관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

내용이다. 簡吉은 조선의 지방제도 개정 要綱을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기도 하였다. 『簡吉獄中日記』, 1930년 3월 31일.

91) 「現在臺灣經濟界救濟策(上)」, 『대만』 3년8호(1922.11.4).

92) 「臺灣의 財政自治論」, 『대만민보』 제86호(1926.1.1).

93)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재정 비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명기, 「대만·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44, 2009을 참고.

94) 『대만청년』과 『대만』은 모두 동경에서 발간된 잡지였고 『대만민보』 역시 1927년 8

고 있다. “조선에는 조선인이 소유한 4, 5종의 신문이 있고 잡지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오직 대만인만 1종도 가지고 있지 않다”⁹⁵⁾면서, “동일한 제국 영토 내의 조선에는 경성에 7대 신문이 있고, 그 중 조선인 경영자가 셋 즉 동아일보·조선일보·시대일보가 있다. 다른 도시의 발간자도 적지 않은데, 대만은 島民 간행 신문이 허가되지 않으니 세계 제일의 신문 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⁹⁶⁾고 비판하였다. 또 이러한 대만 당국의 정책은 일본인의 명예가 아니며⁹⁷⁾, 대만의 사상과 언론에 대한 압박이 조선보다 훨씬 심하다⁹⁸⁾고도 주장했다. 즉 대만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언론 매체의 설립과 언론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조선과 비교하여 그 사례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인사와 관련해 조선은 비교 대상임과 동시에 참고의 대상이었다. “조선에서는 조선인 중에 다수의 知事가 임관 채용되는데 대만에는 전혀 없다”⁹⁹⁾고 문제 제기를 하였고, 조선인 신임 학무국장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는 조선 각 지방의 郡守 대부분이 조선인이고 知事의 절반도 조선인이며 사법관·참사관·사무관 역시 조선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대만인의 임명은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¹⁰⁰⁾며 불만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식민지 조선에는 1910년대 9명, 1920년대 13명, 1930

월 일본어판 발행을 조건으로 대만총독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동경에서 발행되었다. 『臺灣日日新報』는 대만총독이 주도적으로 창간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카다 킨자부로(賀田金三郎)와 같은 일본 실업가의 출자를 통해 발간되었기 때문에 대만인의 신문은 아니었다. 『臺南新報』 역시 일본인 도미지 긴시(富地近思)에 의해 창간되었다.

95) 「豈有不許言論自由的善政嗎?」, 『대만민보』 3권3호(1925.1.21).

96) 「世界一の臺灣新聞政策」, 『대만민보』 제85호(1925.12.27).

97) 「極其盛況の……臺灣問題講演會」, 『대만민보』 제94호(1925.2.28).

98) 「臺灣的思想言論比朝鮮壓迫得很」, 『대만민보』 제211호(1928.6.3).

99) 「臺灣的政治應該着一新了」, 『대만민보』 2권18호(1924.9.21).

100) 「朝鮮人新任爲學務局長」, 『대만민보』 3권1호(1925.1.1).

년대 이후 20명의 조선인 지사가 존재했고¹⁰¹⁾, 군수로 임명된 사람은 총 1,040명이었으며¹⁰²⁾, 전체 고등관 중 대략 20% 내외가 조선인이었다.¹⁰³⁾

조선 여행기나 視察談에서도 조선을 대만과 비교하고 있으니, 조선의 상황이나 환경을 우호적으로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陳後生은 「遊朝鮮所感」에서 조선은 의복이 좋고 교통이 대만보다 편리하며 신문이 발달하고 한자에 비해 쉬운 한글로 되어있어 가독성이 좋다고 하였다.¹⁰⁴⁾ 또 「硝子越に見た南朝鮮」에서는 조선의 철도를 궤도가 넓고 차량이 쾌적하다고 칭찬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정이 대만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적었다.¹⁰⁵⁾ 다만 둘 다 조선의 가옥이 낮고 빈곤해 보인다고 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를 통해 상대적 우월감을 표현한다거나 조선의 낙후함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전자는 그 이유로 조선의 추위와 조선 왕조의 수탈을 들고 있다.

대만을 비교와 참고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은 조선도 다를 바 없었다. 「대만기행」의 필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이 땅, 이 사람 네들의 살아가는 사정을 돌아보아 우리의 살림살이에 한 도움을 견고자 이 글을草한다”¹⁰⁶⁾고 하였고, 대만·南中시찰단 모집 기사에서는 “산업 교육 교통 기타

101) 자세한 내용은 김원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도지사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참조.

102) 박은경,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료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5, 20쪽.

103) 장신, 「일제하 조선인 고등관료의 형성과 정체성」, 『역사와 현실』 63, 2007, 43쪽.

104) 『대만민보』 제132호(1926.11.21).

105) 『대만』 5년2호(1924.5.10). 사실 이런 평가 중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재정자립도와 조세부담액을 차치하고라도, 예컨대 의사 1인당 담당인구를 비교해보면 대만은 1910년 8,482명, 1920년 4,925명, 1930년 3,681명, 1938년 2,678명인 반면, 조선은 1913년 26,088명, 1920년 16,940명, 1930년 11,560명, 1938년 7,779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1938년 조선의 의사 1인당 담당인구가 대만의 1913년(7,483명)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문명기, 「식민지 문명화의 격차와 그 함의」, 『한국학연구』 46, 2013, 46쪽).

各般과 문화의 실상을 견문하고 彼我的 정책을 대조하여 其 長短을 知悉 하여서 조선 장래의 개발 助長에 資할 것¹⁰⁷⁾이라 안내하고 있다.¹⁰⁸⁾ 그러나 조선인의 눈에 대만인은 비교적 정치에 냉담하고 ‘사상의 진보’가 조선에 비해 심히 유치하며¹⁰⁹⁾ 대만 “이주민의 태반이 난세를 피하여 渡臺한 비겁한 류에 속하는 평화주의자인”¹¹⁰⁾ 까닭에 그 사회가 무기력하다고 비취졌다.

이에 반해 대만 지식인들은 대만의 정치운동이 조선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¹¹¹⁾ “조선은 주의운동자가 적지 않은데, 대만의 사상계는 안정되고 주의자나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 없”¹¹²⁾으며 “조선은 극도의 신경흥분으로 냉정을 잃어 스스로를 움직여 반면, 대만인은 생활을 위협받아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실리적으로 움직여 공동생존을 바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¹¹³⁾고 분석하였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용인했던 대만문화협회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 과격한 행동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에서 ‘不祥사건’, ‘위험한 사상’, ‘험악한 분위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다. 심지어 朴烈을 ‘대역죄인’으로 그의 日王 爆殺 시도를 “皇恩을 팔아넘긴 반역”¹¹⁴⁾이라고 매도하였다. 또한 조선의 독립운동을 경제적 궁핍에서 기인한 것으로 역측하기도 하였다.¹¹⁵⁾ 대만문

106) 『매일신보』, 1931년 8월 12일.

107) 『매일신보』, 1931년 9월 9일.

108) 비교와 참고의 대상으로서 대만에 대한 인식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손준식·이승찬, 『『每日申報』(1910-1945) 기사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 161-162쪽을 참조.

109) 『매일신보』, 1925년 2월 5일.

110) 『조선일보』, 1931년 1월 5일.

111) 「臺灣的政治應該着—新了」, 『대만민보』 2권18호(1924.9.21).

112) 「治安維持法對臺灣有何影響」, 『대만민보』 3권16호(1925.6.1).

113) 「臺中不祥事件」, 『대만민보』 제213호(1928.6.18).

114) 「民報日記」, 『대만민보』 제103호(1926.5.2).

화협회 인사는 아니지만 당시 臺中에서 활동했던 張麗俊¹¹⁶⁾ 역시 일기에 대만 방문 중인 구니노미야(久瀨宮) 親王을 살해하려는 趙明河를 ‘兇漢’이라고 적고 있다.¹¹⁷⁾

3. 경쟁과 猜忌의 상대

대만문화협회와 대만민중당에서 대만의회 설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지방자치개혁안이 조선에서 먼저 시행된다는 소식에 대만 지식인들은 망연자실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동변상련의 처지로 비교와 참고의 대상이었던 조선은 경쟁과 시기의 상대로 인식되게 된다. 1929년 말 이후 관련 기사를 보면 대만의 비교 우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조선을 폄하하면서 조선에서 지방자치가 먼저 실시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언급이 거듭 나오고 있다.

“대만의 문화와 산업 발달은 조선에 비해 넘침이 있어도 못함은 없다. …… 조선에서는 이미 개혁이 결정되었는데 대만에는 개혁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인가?”¹¹⁸⁾ 조선인은 지방자치에 무관심한데 비해 “대만인은 일생을 걸고 지방자치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 요구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다. 우리도 조선인처럼 지방자치에 실망해 무관심해야 하는가”¹¹⁹⁾라며自嘲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대만이 산업·교육·재정 및 기타 여러 방면에서 조선보다 발달했는데 왜 사회 변화가 늦어지는지¹²⁰⁾, 조선보다 (식민지) 선

115) 『隨感雜錄: 朝鮮人刑事的談話』, 『대만민보』 제151호(1927.4.3).

116) 장려준(1868-1941): 臺中 출신의 한학자로 일제시기 保正, 協議會員, 신용조합 이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지역주민 구휼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많은 기부하였으며 水竹居主人은 그의 호이다.

117) 『水竹居主人日記』, 1928년 6월 15일.

118) 『朝鮮決定施行眞自治』, 『대만민보』 제292호(1929.12.22).

119) 『朝鮮의 地方自治와 民政黨의 傳統的 政策』, 『대만민보』 제292호(1929.12.22).

120) 『地方自治完成運動民衆黨提出建議書』, 『대만신민보』 제319호(1930.6.28).

배인 대만이 왜 조선보다 뒤쳐져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였다.¹²¹⁾ 심지어 대만이 조선에 비해 취학률이 높아서 납세와 학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만인의 공민권 취득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였다.¹²²⁾

임헌당은 참정권 확대와 지방자치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이와 관련해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일기에 많이 기록되어있다. 예컨대 다카와 다이키치로(田川大吉郎)¹²³⁾가 일본 총리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와의 면담에서 “대만의 문화가 조선에 비해 낮지 않은데 차별대우는 조선에 비해 심하니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제안하였”¹²⁴⁾으며, 조선을 시찰하고 온 葉榮鐘¹²⁵⁾이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의 합작으로 지방자치가 꽤 잘 운용되고 있지만 조선인은 “나태하고 청결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고 적혀있다.¹²⁶⁾ 이런 발언에 대해 임헌당이 별다른 의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대만의 지방자치제도가 조선만 못하다는 임헌당의 생각은 1935년 4월 대만총독부가 지방제도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121) 楊肇嘉, 「關於臺灣地方自治聯盟」, 『대만신민보』 제322호(1930.7.16).

122) 「臺灣地方自治問題管見(三)」, 『대만신민보』 제327호(1930.8.23).

123) 다카와 다이키치로(1869-1947): 일본 長崎縣 출신의 신문기자, 평론가, 관료이다. 1896년 5월부터 1897년 8월까지 『臺灣新報』에서 근무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통역관으로 종군하였다. 1908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1923년 일본기독교연맹 常議員을 맡기도 하였다.

124) 『灌園先生日記』, 1932년 9월 9일.

125) 섬영종(1900-1978): 臺中 출신의 작가, 기자, 사회활동가로 오랫동안 임헌당의 비서를 지냈다. 일본 유학시절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의 허락 하에 매주 동경제대에서 대만식민지경제 수업을 청강했다고 한다. 섬영종의 조선 시찰 목적과 일정 및 그의 조선 인식에 관해서는 최말순, 「식민지 자치론과 대만 지식인 葉榮鐘의 조선행」을 참조.

126) 『灌園先生日記』, 1933년 11월 20일.

나는 이번 자치제의 개혁이 우리들의 희망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조선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만약 자치연맹이 해산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현 제도에 만족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잠시 중지하여 현 제도의 운용 여하를 감시한 연후에 우리들의 운동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¹²⁷⁾

이러한 대만 지식인들의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은 지방자치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예컨대 재정 면에서 대만은 인구와 면적 대비 조선보다 훨씬 안정되고 대만인들이 성실해서 납세의 의무에도 충실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¹²⁸⁾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논조를 취하고 있다. 식민지 增兵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은 비록 증명하더라도 그 경비는 중앙군부에서 직접 부담하고 조선정부는 차액만 부담할 뿐인데, 대만은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¹²⁹⁾며 그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다. 임현당은 米穀 할당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선을 비하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조선·대만의 할당량이 불공평하다고 보았다.¹³⁰⁾ 또 그는 “왜 동경의 대만인은 모두 자산가인데 조선인은 모두 빈곤자나”는 특별고등경찰 정보주임의 질문에 대해 “동경에 온 대만인은 학생 또는 상인이 많고, 조선인은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언뜻 보면 차이가 있다”¹³¹⁾고 답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만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먼저 지방자치개혁안이 실시된 원인이 조선의 과격한 정치운동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대만이 조선만큼 정치운동에 열정적이지 않아서 지방자치 개혁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면서¹³²⁾, 조선의 지방자치 개혁은 그 험악한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이니

127) 『灌園先生日記』, 1935년 4월 8일.

128) 「於官選協議會的質問要項和感想(一)」, 『대만신민보』 제345호(1930.1.1).

129) 「臺灣議將增加兵隊」, 『대만신민보』 제368호(1931.6.13).

130) 『灌園先生日記』, 1935년 1월 23일.

131) 『灌園先生日記』, 1937년 9월 25일.

대만도 좀 더 강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³³⁾ 또 조선 민중의 정치해방 요구가 강력한데 반해, 대만은 그렇지 않아서 조선보다 자치 시행이 미루어지는 것인지 묻고 있다.¹³⁴⁾ 이와 같은 대만과 조선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카타 히데지로(永田秀次郎)¹³⁵⁾는 일찍이 『대만청년』 창간호에 기고한 글에서 “대만의 행정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종종 불만이 있는 점은 피할 수 없지만, 가장 기쁜 것은 대만 학생이 조선 학생처럼 독립운동을 해서 國憲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점이다”¹³⁶⁾고 하였다. 오오타 히데오(太田秀徳)¹³⁷⁾ 역시 “조선 통치는 점차 곤란을 더해하고 있어서 누가 말더라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대만 통치는 조선에 비해 조용하고 평온하다”¹³⁸⁾고 보았다. 이런 인식은 당시 일본 정계의 원로였던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³⁹⁾

실제 조선의 과격한 정치운동이 일제의 지방자치개혁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방자치 실시 문제가 조선을 경쟁과 시기

132) 「朝鮮決定施行眞自治」, 『대만민보』 제292호(1929.12.22).

133) 「地方自治促進運動」, 『대만민보』 제305호(1930.3.22).

134) 「自治改革尙在要求程度」, 『대만신민보』 제312호(1930.5.10).

135) 나가타 히데지로(1876-1943): 일본 兵庫縣 출신으로 第三高等學校(현 京都大學)를 졸업하였고 동경 시장, 拓殖大學 총장, 귀족원 勅選議員 등을 역임하였다. 廣田內閣에서는 拓務大臣, 阿部內閣에서는 鐵道大臣을 담당하였다.

136) 「所感」, 『대만청년』 1권1호(1920.7.16).

137) 오오타 히데오(1874-1950): 일본 茨城縣 출신의 교육자이다. 1912년 조선총독부 視學官, 1919년 대만총독부 시학관 겸 臺灣總督府師範學校 교장을 맡았으며 1923년 多摩少年院 초대 원장을 역임하였다.

138) 「新附民族に對する内地人の心理變化を望む」, 『대만』 3년6호(1922.9.8).

139) “(아마가타 아리토모)公은 또 조선의 불온한 사태에 대해 말하면서 총독 및 정부층감이 부적절한 대책을 베풀었다고 탄식하였고 위험한 사상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였지만, 대만 통치는 늘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하게 통제된다고 칭찬하였다.”(『臺灣總督田健治郎日記』, 1920년 8월 2일)

의 상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그 이면에는 대만문화협회 인사들이 갖고 있던 농후한 중국의식이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만민보』 등에는 대만인 스스로를 漢민족 내지 중국민족이라고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신문 형태로 전환된 이후에는 항상 1면을 중국의 정치와 경제 및 주요 인물에 대한 기사로 채우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성향은 조선과 중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만보산사건 관련 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김열로 인해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지만 중국에 비판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모두 조선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만보산사건 직후 조선에서 발생한 화교배척운동에 대해서는 ‘暴民’이 일으킨 ‘폭행사건’, ‘살상행위’라고 표현하면서 “화교의 재산과 인명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당국이 져야 한다”¹⁴⁰⁾고 보도하고 있다. 즉 일제의 민족차별에 저항하는 도구였던 중국의식이 같은 식민지인 조선이 자신보다 앞서게 되자 손상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변형된 우월감의 형태로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IV. 결론

이상에서 『대만민보』 기사 등을 통해 살펴본 일제시기 대만 지식인의 조선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을 ‘대만인’이라 명명하여 타자와 구분하고 ‘대만’을 공동체의 공간으로 삼는 대만의식은 일제의 식민지 착취와 민족차별에 대한 불만 및 근대화 조치와 동화정책의 결과로 사회이동성이 제고되고 공통어가 등장하면서 1920년대부터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다. 신민회의 성립과 『대만청년』

140) 「朝鮮事件を如何に解決するか」, 『대만신민보』 제373호(1931.7.18).

의 발간을 계기로 대만의회설립청원운동이 전개되고 대만문화협회가 결성되면서 각종 계몽운동을 통해 ‘대만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는데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대만민보』 등을 통해 대만인의 권익 존중과 지방자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일정한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자치주의노선은 내부의 비판과 공격을 받게 되면서 대만문화협회는 분열되고, 그 뒤를 이어 대만민중당과 대만지방자치연맹이 명맥을 이어나가게 된다. 따라서 식민지 통치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였던 지주자산계급 출신의 온건 우파들은 같은 식민지로서 조선의 통치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자신과의 비교 대상으로 조선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

먼저 대만 지식인들에게 있어 조선은 일제의 민족차별을 받고 있는 동병상련의 처지였고 이를 극복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동질의식은 조선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만인의 관심은 주로 참정권과 지방자치 문제에 집중되었고 조선은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재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대만 지식인들은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제국 내 대만의 지위(역할)를 부각시키거나 대만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조선을 언급하였다. 즉 대만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조선보다 못한 대만의 언론 자유와 인사 상의 불평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대만을 비교와 참고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은 조선도 다를 바 없지만 대만에 대한 모종의 우월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인식은 1929년 말 조선에서의 지방자치 실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변하게 된다. 대만문화협회 인사들이 ‘일생을 걸고’ 요구했던 지방자치개혁안이 조선에서 먼저 시행된다는 사실은 실망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이유에 대한 억측과 대응책이 난무하였다. 일제의 모범적인 식민지 대만이 도리어 조선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은

대만 지식인들에게 잠재되어있던 중국의식을 작동시킴으로써 조선을 경쟁과 시기의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러한 대만인의 이중적 심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듯하다. 냉전시기 한국과 대만은 동족상잔을 겪고 국토가 분단(분열)된 상태로 반공의 최전선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했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오랜 항쟁 끝에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비교와 참고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1인당 GDP도 대만을 추월하게 되자 대만인에게 한국은 경쟁과 시기의 상대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한국과 대만의 상호 인식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의식의 복합성과 역사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주제어 : 일제시기, 대만 지식인, 조선 인식, 臺灣文化協會, 『臺灣民報』

(논문투고: 2018.12.14. / 논문심사완료: 2018.12.17. / 논문게재 확정일: 2018.12.20.)

참고문헌

<자료>

- 『臺灣青年』, 『臺灣』, 『臺灣民報』, 『臺灣新民報』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水竹居住人日記』,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0-2004.
『簡吉獄中日記』, 臺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2005.
『灌園先生日記』, 臺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籌備處), 2000-2011.
『臺灣總督田健治郎日記』, 臺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籌備處, 2001.
『黃旺成先生日記』, 臺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2008-

<단행본>

- 簡炯仁, 『臺灣民衆黨』, 臺北, 稻鄉出版社, 2001.
簡炯仁, 『臺灣開發與族群』, 臺北, 前衛出版社, 1995.
江丙坤, 『臺灣田賦改革事業之研究』, 臺北, 臺灣銀行經濟研究室, 1972.
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0.
戴國輝 著, 魏廷朝 譯, 『臺灣總體相』, 臺北, 遠流出版公司, 1992.
李理, 『日據時期臺灣警察制度研究』, 臺北, 鳳凰出版社, 2013.
林柏維, 『臺灣文化協會滄桑』, 臺北, 臺原出版社, 1998.
矢內原忠雄 著, 周憲文 譯, 『日本帝國主義下之臺灣』, 臺北, 帕米爾書店, 1987.
葉榮鐘 等, 『臺灣民族運動史』, 臺北, 自立晚報社, 1983.
葉榮鐘, 『小屋大車集』, 臺中, 中央書局, 1977.
葉榮鐘, 『日據下臺灣政治社會運動史』, 臺北, 晨星出版, 2000.
吳新榮, 『震瀛回憶錄』, 臺北, 前衛出版社, 1989.
王詩琅 外編, 『臺灣史』, 臺中, 臺灣省文獻委員會, 1977.

- 王曉波, 『臺灣意識의 歷史考察』, 臺北, 海峽學術出版社, 2001.
- 周婉窈, 『日據時代的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 臺北, 自立報系文化出版部, 1989.
- 陳翠蓮, 『臺灣人的抵抗與認同, 1920-1950』, 臺北, 遠流出版公司, 2008.
- 커즈밍 지음, 문명기 옮김, 『식민지 시대 대만은 발전했는가: 쌀과 설탕의 상극, 1895-1945』, 일조각, 2009.
- 許介麟, 『日本殖民統治讚美論總批判』, 臺北, 文英堂, 2006.
- 許雪姬 外, 『臺灣歷史辭典』, 臺北, 文建會, 2004.
- 黃昭堂著, 黃英哲譯, 『臺灣總督府』, 臺北, 前衛出版社, 1994.
- 黃秀政 外著, 『臺灣史』, 臺北, 五南圖書出版, 2002.
- 黃俊傑, 『臺灣意識與臺灣文化』, 臺北, 臺灣大學出版中心, 2006.

<논문>

- 김원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도지사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廖振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한 안중근에 대한 대만의 관점」, 임대근·陳國偉, 『대만 문학: 식민의 기행부터 문화의 지평까지』, HUINE, 2017.
- 문명기, 「대만·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44, 2009.
- 문명기, 「대만·조선의 '식민지근대'의 격차」, 『중국근현대사연구』 59, 2013.
- 문명기, 「식민지 문명화의 격차와 그 함의」, 『한국학연구』 46, 2013.
- 문명기, 「일제하 대만·조선 총독부 세입의 추이와 구조 -조세수입과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史林』 56, 2016.
- 박은경,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료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5.

- 山川均 著, 蕉農 譯, 『日本帝國主義鐵蹄下的臺灣』, 王曉波編, 『臺灣的殖民地傷痕』, 臺北, 帕米爾書店, 1985.
- 손준식, 「『皇民化運動』 이전(1895-1936) 臺灣의 식민통치 협력자」, 『역사문화연구』31, 2008.
- 손준식, 「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 『조선일보』(1920-1940) 記事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4 , 2007.
- 손준식, 「일제 식민지 하 대만 경찰제도의 변천과 그 역할」, 『중국근현대사연구』 47, 2010.
- 손준식, 「일제 하 ‘대만의식’의 형성 배경과 그 성격」, 『중앙사론』 31, 한국중앙사학회, 2010.
- 손준식, 「일제시기 대만지식인의 ‘조국의식’과 중국경험」, 『중국근현대사연구』 5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2.
- 손준식, 「『동아일보』(1920-1940) 기사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 『中國學報』 61, 2010.
- 손준식, 「식민지조선의 대만 인식: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창비, 2012.
- 손준식·이승찬, 「『每日申報』(1910-1945) 기사를 통해 본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 『역사문화연구』 63, 2017.
- 若林正丈, 「臺灣抗日運動中的‘中國座標’與‘臺灣座標」, 『當代』 17, 1987.
- 梁華璜, 「日據時代臺民赴華之旅券制度」, 『臺灣總督府的對岸』政策研究』, 臺北, 稻鄉出版社, 2001.
- 李筱峰, 「一百年來臺灣的政治運動中的國家認同」, 張炎憲 外編, 『臺灣近百年史論文集』, 臺北, 吳三連臺灣史料基金, 1996.
- 이승찬, 「皇民化時期(1937-1945) 臺灣知識人 吳新榮의 自我正體性과 戰爭認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태훈,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자치·참정권 청원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장신, 「일제하 조선인 고등관료의 형성과 정체성」, 『역사와 현실』 63, 2007.
- 張以琳, 「日據時期臺·韓士大夫的民族意識－以『臺灣民報』·『三千里』爲例」,
佛光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 崔末順, 「日據時期臺灣左翼刊物的朝鮮報導－以『臺灣大眾時報』和『新臺灣
大眾時報』爲觀察對象」, 『中國言語文化』 2, 2012.
- 崔末順, 「日據時期的臺灣文壇與韓國」, 『跨國·跨語·跨視界－臺灣文學史料
集刊』 5, 2015.
- 최말순, 「식민지 자치론과 대만 지식인 葉榮鐘의 조선행」, 김재용 외 편저,
『한국근현대문학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역락, 2018.
- 崔末順, 「1940年代臺灣文壇提及‘朝鮮’的脈絡及其理由」, ‘東亞殖民主義與
文學研究會’第五次研究大會暨‘臺灣/滿洲/朝鮮’的殖民主義與文化交
涉’國際學術研討會 발표문, 2018.
- 황선미, 「세춘무(謝春木)의 기행문에서 나타난 조선인식」, 임대근·陳國偉,
『대만 문학: 식민의 기행부터 문화의 지평까지』, HUINE, 2017.
- 黃頌顯, 「臺灣文化協會的思想與運動(1921-1931)」, 中國文化大學 博士學
位論文, 2007.

Reference

<Historical Materials>

- Táiwān Qīngnián*, *Táiwān*, *Táiwān Mínbào*, *Táiwān Xīnmínbào*
Maeil Shinbo, *Dong-A Ilbo*, *Chosun Ilbo*
Shuǐzhū Jūzhǔren Rìjì, Táiběi, Zhōngyāngyánjiūyuàn Jìndàishǐ
Yánjiūsuǒ, 2000–2004.
JiǎnJí Yùzhōng Rìjì, Táiběi, The Institute of Taiwan History, 2005.
Guànyuán Xiānshēng Rìjì, Táiběi, The Institute of Taiwan History,
2000–2011.
Táiwān Zōngdū DenKenjiro Rìjì, Táiběi, The Institute of Taiwan
History, 2001.
Huángwàngchéng Xiānshēng Rìjì, Táiběi, The Institute of Taiwan
History, 2008–

<Book>

- Jiǎn Tónggrén, *Táiwān Míngzhòngdǎng*, Táiběi, Dàoxiāng Chūbǎnshè,
2001.
Jiǎn Tónggrén, *Táiwān Kāitǎiyǔ Zúqún*, Táiběi, Qiánwèi Chūbǎnshè, 1995.
Jiāng Bǐngkūn, *Táiwān Tiānnù Gǎigé Shìyèzhī Yánjiū*, Táiběi, Táiwān
Yínháng Jīngjì Yánjiūshì, 1972,
Kim Yeong-sin, *Daemanui Yeoksa*, Seoul, Jiyeongsa, 2000.
Dài Guóhuī, Wèi Tǐngcháo Trans., *Táiwān Zōngtǐxiàng*, Táiběi, Yuǎnliú
Chūbǎn Gōngsī, 1992.
Lǐ Lǐ, *Rìjùshíqī Táiwān Jǐngcházhidù Yánjiū*, Táiběi, Fènghuáng
Chūbǎnshè, 2013.

- Lín Bǎiwéi, *Táiwānwénhuàxiéhuì Cāngsāng*, Táiběi, Táiyuán Chūbǎnshè, 1998.
- Yanaihara Tadao, Zhōu Xiànwén Trans., *Riběn Diguózhǔyìxiàzhi Táiwān*, Táiběi, Pàimiěr Shūdiàn, 1987.
- Yè Róngzhōng, *Táiwān Mínzúyùndòngshǐ*, Táiběi, Zhì Wǎnbào shè, 1983.
- Yè Róngzhōng, *Xiǎowū Dàchējí*, Táizhōng, Zhōngyāng Shūjú, 1977.
- Yè Róngzhōng, *Rìjùxià Táiwān Zhèngzhì Shèhuìyùndòngshǐ*, Táiběi, Chénxīng Chūbǎn, 2000.
- Wú Xīnróng, *Zhènyíng Huíyìlù*, Táiběi, Qiánwèi Chūbǎnshè, 1989.
- Wáng Shílang, Shèng Qīngyí, Gāo Shūfān, Lín Héngdào Eds., *Táiwānshǐ*, Táizhōng, Táiwānshèng Wénxiàn Wēiyuánhùi, 1977.
- Wáng Xiǎobō, *Táiwān Yìshíde Lìshǐ Kǎochá*, Táiběi, Hǎixiá Xuéshù Chūbǎnshè, 2001.
- Zhōu Wányǎo, *Rìjùshídàide Táiwān Yìhuì Shèzhì Qīngyuàn Yùndòng*, Táiběi, Zhì Bào xī Wénhuà Chūbǎnbù, 1989.
- Chén Cuīlián, *Táiwānrénde Dìkàngyǔ Rèntóng, 1920-1950*, Táiběi, Yuǎnliú Chūbǎn Gōngsī, 2008.
- Kē Zhīmíng, Moon Myungki Trans., *Sikminji Sidae Daemaneun Baljeon Haeossneunga: Ssalgwa Seoltangui Sanggeuk*, 1895-1945, Seoul, Iljogak, 2009.
- Xǔ Jièlín, *Riběn Zhīmíntǒngzhì Zànměilùn Zǒng Pìpàn*, Táiběi, Wényīngtáng, 2006.
- Xǔ Xuějī, *Táiwān Lìshǐ Cǐdiǎn*, Táiběi, Wénjiànhuì, 2004.
- Huáng Zhāotáng, Huáng Yīngzhé Trans., *Táiwān Zǒngdǎotǔ*, Táiběi, Qiánwèi Chūbǎnshè, 1994.
- Huáng Xiùzhèng, *Táiwānshǐ*, Táiběi, Wǔnán Túshū Chūbǎn, 2002.

Huáng Jūnjié, *Táiwān Yìshíyǔ Táiwān Wénhuà*, Táiběi, Táiwān Dàxué Chūbǎn Zhōngxīn, 2006.

<Articles>

Kim Wondo, “A Study on Korean Governor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2018.

Liào Zhènfù, “Ito Hirobumireul Amsalhan An Junggeune Daehan Daemanui Gwanjeom”, Lim Daegeun, Chén Guówěi Eds., *Daeman Munhak : Sikminui Gihaengbuteo Munhwaui Jipyongkkaji*, HUINE, 2017.

Moon Myungki, “A Comparative Study of the Finance of Shosen·Taiwan Sotokufu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the Ability to Govern of Japan As a ‘Colonial Empire’”, *Korean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 44, 2009.

Moon Myungki, “Daeman · Joseonui ‘Sikminji Geundae’ui Gyeokcha”, *Korean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 59, 2013.

Moon Myungki, “Adaptation and Retrogression toward Civilization—Reappraisal of Colonial Modernity in Taiwan and Korea through Comparison of Medical Systems in Both Areas—”, *Journal of Korean Studies* 46, 2013.

Moon Myungki, “General Tendency and Structure of Government-Generals’ Annual Revenue in Korea and Taiwan—With Focuses on Tax Revenue and Tax Burden—”, *The Historical Journal* 56, 2016

Park Eunkyung , “A Study on Korean Bureaucrats under the Japanese

- Colonial Rul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8-2, 1995.
- Yamakawa Hitoshi, Jiāonóng Trans., “Rìběn Dìguózhǔyì Tiětíxiàde Táiwān”, Wáng Xiǎobō Ed., *Táiwānde Zhīmíndì Shānghén*, Táiběi, Pàimǐěr Shūdiàn, 1985.
- Son Junsik, “Hwangminhwa Undong’ Ijeon(1895-1936) Daemanui Sikmin Tongchi Hyeopryeokja”,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31, 2008
- Son Junsik, “Sikgminji Joseonui Daeman Insik: *Chosun Ilbo*(1920-1940) Gisareul Jungsim Euro”, *Korean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 34 , 2007.
- Son Junsik, “Ilje Sikminji ha Daeman Gyeongchal Jedoui Byeoncheongwa Gui Yeohal”, *Korean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 47, 2010.
- Son Junsik, ““Taiwanese Consciousness”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Its Formation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ung-Ang Historical Studies* 31, 2010.
- Son Junsik, “Iljesigi Daeman Jisikinui ‘Joguku Eusik’gwa Jungguk Gyeongheom”, *Korean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 56, 2012.
- Son Junsik, “Dong-A Ilbo(1920-1940) Gisareul Tonghae Bon Sinkminji Joseonui Daeman Insik”, the *CHUNG KUK HAK PO* 61, 2010.
- Son Junsik, “Sikminji Joseonui Daeman Insik: *Chosun Ilbowa Dong-A Ilbo* Gisareul Jungsimeuro”, Choi Wonshik, Baik Youngseo Eds., *Daemaneul Boneun Nun: Hanguk-Daeman Gongsaeungui Gileul Chajaseo*, Changbi, 2012.
- Son Junsik, Lee Sungchan, “Perception of Taiwan by Koreans in

- Colonial Age-Focusing on the Articles in Maeilsinbo (1910-1945)”,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63, 2017.
- Wakabayashi Masahiro, “Táiwān Kàngrì Yùndòng Zhōngde ‘Zhōngguó Zuòbiāo’yǔ Táiwān Zuòbiāo’”, *Con-Temporary Monthly* 17, 1987.
- Liáng Huáhuáng, “Rìjùshídài Tǎimín Fùhuázī Lǚquàn Zhìdù”, *Táiwān Zōngtǔfúde ‘Dù’àn’ Zhèngcè Yánjiū*, Táiběi, Dàoxiāng Chūbǎnshè, 2001.
- Lǐ Xiǎofēng, “Yìbǎinián Lái Táiwānde Zhèngzhì Yùndòng Zhōngde Guójiā Rèntóng”, Zhāng Yánxiàn Ed., *Táiwān Jīn Bǎiniánshǐ Lùnwénjí*, Táiběi, Wúsānlián Táiwān Shìliào Jījīn, 1996.
- Lee Sungchan, “Taiwanese intellectual, Wu Sin-rong’s self-identity and the perception of war during the period of Japanization (1937-1945)”,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6.
- Jang Shin, “The rise of high-ranking Joseon civil officials and their identi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63, 2007.
- Zhāng Yǐlín, “Rìjùshíqī Tái, Hán Shìdàfúde Mǐnzú Yìshí — Yǐ Táiwān Mǐnbào, Sānqiānlǐ Wéilì”, master’s dissertation, FoGuang University, 2017.
- Choi MalSoon, “Rìjùshíqī Táiwān Zuǒyì Kānwùde Cháoxiǎn Bào — Yǐ Táiwān Dàzhòng shìbào Hé Xīn Táiwān Dàzhòng Shìbào WèiGuānchá Duìxiàng”, *Zhōngguó Yányǔ Wénhuà* 2, 2012.
- Choi MalSoon, “Rìjùshíqīde Táiwān Wéntán Yǔ Hánguó”, *Kuàguó·Kuàiyǔ·Kuàishìjiè-Táiwān Wénxué Shìliào Jíkān* 5, 2015.
- Choi MalSoon, “Sikminji Jachirongwa Daeman Jisikin Seobyongjongui Joseonhaeng” Kim Jaeyong Ed., *Hanguk Geunhyeondae Mun-*

hakgwa Jungguk Geurigo Dongasia, Yeokrak, 2018.

Choi MalSoon, “1940Niándài Táiwān Wéntán Tǐjǐ Cháoxiǎnde màilùò Jǐ Qí Lǐyóu”, ‘Dōngyà Zhímínzhǔyìyǔ Wénxué Yánjiūhuì’ Dìwǔcì Yánjiūdàhuì Jì Táiwān/Mǎnzhōu/Cháoxiǎnde Zhímínzhǔyìyǔ Wénhuà Jiāoshè Guóji Xuéshù Yántǎohuì Fābiǎowén, 2018.

Hwang Sunmi, “Syechunmuui Gihaengmuneseo Natanan Joseon Insik”, Lim Daegeun, Chén Guówěi Eds., *Daeman Munhak : Sikminui Gihaengbuteo Munhwai Jipyongkkaji*, HUINE, 2017.

Huáng Sòngxiǎn, “Political Thoughts and Social Movements of The Taiwan Cultural Association from 1921–1931”, Doctoral Dissertation, Chinese Culture University, 2007.

Taiwanese Intellectuals' Recognition of Joseon(朝鮮)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Focusing on Members of the Taiwanese Cultural Association

Lee, Sung—chan · Son, Jun—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cognition of Joseon expressed by Taiwanese intellectuals through magazines, newspaper articles, and diary analysis, focusing on members of the Taiwanese Cultural Associ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aiwanese Cultural Association was founded in 1921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aiwanese intellectuals at that time. While promoting the movement to increase Taiwanese people's rights in various spaces, it actively expressed its opinions on *Táiwān Mínbào*(『臺灣民報』). The Taiwanese consciousness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others by naming the people 'Taiwanese' and uses 'Taiwan' as the space of community. It was the result of the dissatisfaction with exploitation and national discrimin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result of modernization and assimilation policies, social mobility was enhanced and a common language emerged; all of this gradually began to form around Taiwanese students in Japan. The Taiwanese Cultural Association, founded by people with Taiwanese consciousness, aimed at reforming colonial rule such as establishing Taiwan's parliament and local self-government assuming that political colonial rule was admitted. Therefore, they were sensitive to the situation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policies in Joseon, which was the same colony of Japan.

To the intellectuals of Taiwan, Joseon was recognized as a

companion who was in a similar situation under Japanese colonialism, working with Taiwan to have the right to be treated equally. The press of Joseon had also the same sense of identity. However, Taiwanese people's interests were mainly concentrated on the issue of political rights and local autonomy, and Joseon was often regarded as a comparison for raising practicality. On the other hand, Taiwanese intellectuals referred to Joseon as a reference case to highlight the status of Taiwan in the Japanese empire and to make clear the reality that Taiwan is discriminated compared to Joseon. In other words, it emphasized the financial integrity of Taiwan and raised the issue of Taiwan's press freedom and inequality,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Joseon. In summary, Taiwan demanded appropriate rights.

However, when the news that the local autonomy reform plan would be implemented first came to Joseon in late 1929, the Taiwanese Cultural Association, which had been demanding autonomous reform for a lifetime, was shocked. So, they began to reveal their superiority to Joseon with a lot of conjecture and countermeasures. It seems that the idea that Taiwan was discriminated against compared to Joseon made Taiwanese intellectuals expressing the Chinese consciousness and aware them of Joseon as a competitor. This duplicity by the Taiwanese makes us think about the lessons of the irony of history in the sense that it has been repeated in the process of perception change in Korea since the Cold War.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Taiwanese intellectuals, Recognition of Joseon, Taiwanese Cultural Association, *Taiwan Minbào*